

전남도, 정부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사업 선정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3개 과제...국비 60억원 지원 세계 최초 시공기준 확보 추진 "특별법·주민주도형 확산 온힘"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분야 3개 연구개발과제 공모사업에 전남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참여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모두 선정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 분야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표준모델 실증연구에 기반해 세계 최초로 시공기준을 확보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과제는 △1과제, 작물 위 고정식 로프타형 표

준모델 설계·실증 △2과제, 작물 간 수직 펜스형 표준모델 설계 및 실증 △3과제, 유희부지 적용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실증연구 및 시공기준 개발이다. 전남지역 기업(주유에너지, ㈜더블유피)가 각각 1, 2과제 주관기업 역할을 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동신대, 전남도농업기술원, ㈜갈산, 에스디엔㈜ 등 국내 영농형 태양광을 선도하는 전남 기업·기관도 3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다.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일찍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전남 농지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9GW 내의 규모의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주 공급원,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영광 월평마을에 국내 최초 3MW 규모의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모델 착공이 시작됐으며,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에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단지도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도 적극 건의 중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주민주도형 사업 확산을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지오푸드 '무등산수박' 내달 2일 출하

금곡동작판장서 판매 시작 '주상절리대' 새 포장 선보

광주 대표 특산품이자 지오푸드 '무등산수박'이 오는 8월2일 판매를 개시한다. 이번 출하는 세계가 인증한 지오푸드로 첫 선을 보이는 것으로, 10여년만에 처음으로 포장을 새롭게 단장해 소비자를 찾아간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7개 농가에서 생산된 무등산수박이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공동작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하가격은 7kg 기준 3만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제품 포장은 무등산수박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진한 색을 사용하고 주상절리대를 포함시켜 무등산에서만 자라는 무등산수박의 특징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무등산수박생산자 조합과 지오푸드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푸드파트너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식품브랜드인 '지오푸드(GEOfood)'로 등록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무등산에서만 자라는 신비하고 거대한 수박'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지오푸드(GEOfood)란 세계지질공원 지역향토음식 브랜드로, 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된 농산물·음식·음료에 국제적 브랜드를 적용해 지질공원 식품에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 지질공원 간 상호 홍보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무등산수박의 명성에 걸맞게 포장도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무등산수박생산자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북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무등산수박전담팀(TF)을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제품포장의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김용만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번 무등산수박 패키지 리뉴얼 사업은 단순히 디자인 개선 차원이 아니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푸드로서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지역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보물로서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반려동물과 문화나들이 하세요"

내달 13~18일 역사민속박물관서 31일 '반려동물 아트피크닉'

광주시는 오는 8월26일 '세계 개의 날(International Dog Day)'을 앞두고 8월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반려동물 동반 특별 관람주간'을 운영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에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때는 관람자 1명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개별 이동장이나 개 유모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은 입·출구 로비에서 개 유모차와 배변 패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층 로비에 설치된 '견생네컷' 즉석사진 포토부스에서 반려가족의 추억사진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고, 관람객에게는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제공한다.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의 가

족이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사진전'도 1층 로비에서 함께 열린다. 또 8월31일 역사민속박물관 잔디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피크닉'이 열린다. 이 행사는 도심 속 문화예술 소품인 '아트 피크닉'과 연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산책교육, 어질리티, 놀이 체험부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로 2회를 맞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는 반려가족에게 문화관람의 경험을 선사하고, 놀이·체험부스 등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됐다"며 "앞으로도 '생명가치 존중도시 광주'에 걸맞게 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청소년 등이 29일 광산구 비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비아 청소년자율공간'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광산에 '비아 청소년자율공간' 개소

유휴공간에 휴식·놀이공간 조성 광주 북구에 이어 광산구에도 휴식·놀이·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청소년자율공간'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광산구 비아동행정복지센터에서 '비아 청소년자율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자율공간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문화·오락 체험과 학습·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아 청소년자율공간은 비아초등학교

인근(광산구 비아중앙로30 참좋은약국 2층)에 위치했다. 비아 청소년자율공간은 전용면적 138.9㎡ 규모로, 총사업비 3억7000만원(시비 3억2600만원, 구비 4400만원)을 투입했다. 내부 공간은 스티디룸, 노래연습실, 포토존(인생네컷), 가상현실(VR)체험존, PC방 등 청소년의 여가·휴식·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꾸러졌다. 비아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에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협력이 일등공신이 됐다.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해 참좋은약국약사인 김수철씨가 10년간 무상임대했다. 또한 마을주민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위원회를 만들어 공간 조성을 함께 추

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최지현·이명노·이귀순 시의원, 비아 드루와 청소년 기획단 등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비아 청소년자율공간은 청소년들과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첫발을 뚫고, 행정이 힘을 더해 만든 결과물이다"며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기에 앞으로도 광주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 청소년자율공간인 '재미나 zip'은 임동 서림마을다사로움2단지 1층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9세~18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6년까지 남구와 서구 등에 청소년자율공간 총 1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본격 추진

착수 보고회... "디지털 격차 해소" 키오스크 사용·AI 실생활 응용과정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4년 전남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25일 목포 하당노인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오는 8월부터 상설 디지털배움터 3개소, 디지털 체험존 5개소 등을 운영하고, 12월 말까지

총 3만6000여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 장소인 디지털 배움터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광양 커뮤니티센터, 무안 남약복합주민센터, 보성군노인복지관으로 지정됐다. 실생활 활용 디지털 교육과 생활 속 자주 겪는 디지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도 평일 상시 운영한다. 교육은 본인인증·공공서비스(정부24, 보조금 신청),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스마트뱅킹, 피싱 예방, 병원 예약, 키오스크 주문,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등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배움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교

육생을 위해 교육 수요가 많은 단체·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신청받아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과 섬 지역 등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에듀버스 디지털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도민은 누구나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해 실생활 서비스 위주의 키오스크, 태블릿, 인공지능(AI) 스피커, 태블릿, 가상현실(VR)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실습할 수 있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이나 디지털 배움터 콜센터(1800-00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